

글. 김성환_ Kim, Sunghwan

Lanz Architekten und Generalplaner

건축사 David Adjaye - 집.

Architect, David Adjaye - House

지난 5월, 연휴를 이용하여 집에 남아 있는 이삿짐을 정리하러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쾰른에 올라갔다. 오랜 기간 동안 모아왔던 책을 정리할 겸 이리 저리 옮겨 박스에 담아 내던 중, 우연히 책 한 권이 손 안에 들어왔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먼 길을 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 안에서 펼쳐지는 한 건축사의 세계 안에 빠져 밤새 앉아 있게 되었다.

이 아프리카 가나출신의 영국 건축사는 런던에서 근 십년동안 활동하며 다양한 주거설계에 참여를 하였다. 이 설계들은 대부분 기존 밀도가 높은 런던 시가지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래된 집이나, 혹은 이런 집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작은 공간을 찾아내 재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의 집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에 촉매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미술적인 감각을 최대한 쏟아내어, 미술과 건축사이의 경계 안에서 그의 고민을 털어내고자 노력했다. 그의 작업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미술적인 섬세함은 그의 설계를 위한 끊임없는 연구에 밑바탕이 되었다.

사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단순히 그의 건축세계가 미술 작가 Tim Noble, Sue Webster 혹은 Jürgen Teller의 단순 공간작업과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 그는 여러 미술작가와 협업을 통해, 건축과 미술 사이의 접점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한다. 2003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미술작가 Chris Ofili와 함께 진행한 영국관 전시 디자인은 그의 이러한 고민이 잘 드러나고 있다. 원색적인 색감을 이용한 대조적인 구성은

당시, 방문객으로 하여금 선명한 인상을 남겼다. 그의 이러한 예술적인 고민은, 매 설계마다 한결 같이 단계를 거칠 때마다 흑사라도 그의 생각과 고민이 실제로 지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가 지어내는 집도 또한 단순한 그의 개인적인 미술작품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닌, 실용적인 공간으로 사는 이로 하여금 필요에 의한 만족이 꼭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가 주거 설계안에서 제안해내는 개념이란, 단순한 직감이나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닌, 그의 성장배경을 통해 나오는 다양한 경험이라는 것을 또한 엿볼 수 있다. 그가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난 것은 그의 이력을 보면 더욱 확연히 알 수 있는데 그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가톨릭 신자로서 무슬림 국가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아프리카 청년으로서 북런던 지역에서 성장한 나는 이 다양한 문화적인 경험을 어렸을 적부터 스스로 소화할 수 있게 엮어나가야 했다”라고 고백한다. 이것은 그의 눈을 통해 보여지는 주거형태, 양식 그리고 재료, 아프리카, 일본 그리고 중동 아시아지역의 건축 형태와 전통, 즉 어디서든지 그에게 자극이 되는 것은 매번 전형화 시키지 않고 분석하고 연구하여 그것을 토대로 작업하고 모아온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프리카 특유의 요소들은 그의 건축 세계의 하나의 전형적인 레퍼토리가 되었다. (전시설계 / Asymmetric Chamber in the CUBE Gallery)



asymmetric chamber project _ Cube 갤러리 출처 Adjaye Associates



Electra House 모델사진 1



Electra House 모델사진 2

현대의 미학에 대응하는 그의 설계는 확실히 안과 밖으로 나뉘어진다. Electra House나 Dirty House에 보여지는 외부 입면과 내부 공간의 물리적인 차이는 다양한 건축적인 장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이 된다. 어두운 색의 전면부와 측면부 입면은 집을 전체적으로 무겁게 보이게 하지만, 그 전체의 구조는 가능하기 어렵게 한다. 재료들의 이음새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모듈을 형성하고 이 모듈 안에서 외부와 내부의 공간구성이 전혀 다름을 암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두집은 외부의 거칠고 투박한 느낌과는 달리 내부에는 단순한 빛과 유리를 이용한 밝은 공간을 제시하여 외부와의 단절을 더욱 강조한다.

이러한 그의 설계의 다양성은 알루미늄 패널, 슬레이트, 메탈, 유리, 콘트리트 등 그가 사용하는 다양한 재료 안에서 연결된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데서 오는 기술적인 정교함은 그의 손에서 시작된다. 그의 공간에 대한 스케치는 실험적이지만 본질을 놓치거나 절대 임시적이지 않다. 즉, 그의 기술은 절대 화려하거나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단순한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이 바로 재료에 정교함을 더욱 배가시키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작업은 사실 특정층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지만, 평범한 집에서 살아가는 일반인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 등이 필요로 하는 집에는 이러한 미학이 큰 의미를 차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

“저는 사실 그런 테마와 관련되어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이나 중산층을 위한 집들도 지은 것이 사실이지요. 제가 사회 중산층을



Electra House 전면사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주거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대한 중산층을 담아 낼 수 있는 주거블록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흥분되는 일입니다. 뉴욕에 있는 Sugar Hill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인데요, 단순히 주거라는 단어에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 왜 우리가 저예산 주거 프로젝트를 단순히 흥미로운 실험으로 생각하고 건축사들의 상상에 맡기는가에 대한 질문이지요. 이러한 실험은 사실 주거 계획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섞여서 제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규모 안에서 하나의 깊은 밀도를 만들어 내야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중산층의 환경에서 혹시 적당한 밀도가 생겨난다면, 이것은 훌륭한 상업적인 그리고 생산적인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단순히 저소득층을 위해 단순한 상업지구만을 만들어 낸다면, 이것은 절대 성공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Sugar Hill 프로젝트의 훌륭한 점은 바로, 우리가 하나의 커뮤니티 안에 박물관, 탁아소, 옥상정원이나 텃밭, 미술관련 프로그램들을 집어넣고 작동시키는데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의 어렸을 적 경험들, 즉 유년기 시절 제3세계 외교관의 아들로써 다양한 나라와 문화를 경험하고 난 뒤, 그 경험에서 나오는 정교한 예술성이 그가 만들어 내고자 하는 건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라면, 그가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려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의 집을 만들어내는 완성도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국 건축사 David Adjaye는 가나 출신의 부모님과 함께 중동지역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영국 왕립 예술학교에서 석사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런던의 다양한 건축사사무소에서 경험을 한 뒤, 1994년 William Russell과 함께 건축사사무소를 만든 후 전시디자인과 인테리어에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 2000년 개인적인 독립을 한 후, 현재 30명 규모의 건축사사무소를 런던, 뉴욕 그리고 베를린에 가지고 있다.



Sugar Hill Project _ 사진 Robert Wright



베네치아 비엔날레 영국관 (2003) _ Chris Ofili 출처 Adjaye Associates